

해남군, 주민 주도 광복절 역사 되새긴다

75회째 화산면 광복절 체육대회
옥매광산 광부 118인 추모제 19일
42개마을 50여개 팀 출전 관심↑
면민노래자랑·축하공연·전야제 등

해남군에서 주민 주도로 열리는 광복 기념행사에 관심이 쏠린다. 75회째 맞는 화산면 광복절 체육대회, 옥매광산 추모제 등 특별한 광복절 기념행사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화산면에서는 화산면민의 날 기념식 및 광복기념 체육대회를 광복절인 15일 화산초등학교에서 개최한다. 화산면의 광복기념 체육대회는 광복 다음해부터 열려 벌써 75회째를 맞이했다.

쪼뚱더위 속에서도 매년면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광복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이다. 농사일을 손에서 놓은 주민들은 다같이 광복절 만세삼창을 외치고 음식을 나누면서 마을별 체육대회로 하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해와 큰 가뭄이 들었던 1968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최근의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거른 적이 없는 전통의 체육대회는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42개 마을에서 50여개의 축구팀이 출전할 정도로면민들의 열기가 높았다.

‘명절 때는 못와도 광복절 체육대회는 참석한다’고 할 정도로 각지의 향우들까지 고향방문의 계기로 삼을 만큼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2005년부터는면민의 날을 8월15일 광복절로 옮겨 함께 치를 정도로 화산면민들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인선 화산면체육회 회장은“민간의 주민들이 주축이 돼 수십년 이어온 광복절 행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촌 인구가 줄면서 체육대회 규모가 줄고 출전 선수들은 고령화 되었지만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날의 감격을 함께 하는 것은 우리 고장만의 특별한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도 제22회 화산면민의 날 및 제75회 8·15 광복기념 체육대회는 어김없이 열린다.

14일면민노래자랑과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 전야제를 시작으로 15일에는면민과 향우 1000여명이 참여하는 광복절 기념 화산면민의 날 및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사가 있다면 아픈 역사의 기억을 되새기는 희생자 추모제도 열린다.

19일에는 화산면 옥매광산에서 화산옥매광산 광부 118인 합동추모제가 개최된다.

옥매광산 광부집단수몰사건은 일제강점기 제주도로 강제로 끌려간 광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바다에 집단 수몰된 사건이다.

생존자들이 대부분 사망하고 유족들도 고향을 떠나면서 남아있던 몇몇 유족이 돈을 모아 광부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45년 8월23일(음력 7월16일)에 합동 제사를 지내오던 중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난 2015년 지역의 뜻있는 이들이 힘을 보태 합동추모제가 성사됐다.

군민 1인 1만원 성금 모금을 통해 추모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계기도 되고 있다. 합동추모제는 광부들이 고향을 떠났던 화산면 옥동리 삼호선착장에서 열린다.

옥매광산은 일본 아사다화학공업株式회사가 1924년부터 명반석, 납석, 고령토 등 광물자원을 채굴했던 곳으로 현재도 바닷가에 위치한 광물창고와 산속의 다이내마이트 저장창고 등이 남아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에서부터 시작한 호국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주민들이 스스로 광복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온 특징이 있다”며 “땅끝해남에서 시작한 광복의 함성이 나라사랑의 진정한 마음을 다 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 삼산막걸리, 고도탁주 대상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해남군 삼산막걸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우리술 품평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총 395개 제품이 출품됐다.

우수한 전통주 선정을 위해 주류 전문가, 국민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3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고도탁주 부문 대상 제품으로 선정된 삼산주조장의 ‘해남찰쌀생막걸리 9도’는 해남산 찹쌀, 햅쌀과 누룩만으로 장기 발효한 무감미료 제품으로, 두류산의 깨끗한 물로 빚은 맑고 경쾌한 맛이 특징이다.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정부주관 전통주 경연대회이다.

시상은 11월에 예정된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기념행사와 연계해 이루어지며 수상 제품에 대해서는 상급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혜택이 주어진다.

해남=전연수 기자

전남재향경우회, 자문위원 위촉 오현석 목포새마을협회장 선임

전라남도 재향경우회(회장 최철웅)는 지난 12일 목포 하당에 위치한 미향횃집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30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장으로는 오현석 목포시새마을협의회장이 선임되었으며 이번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3년간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최철웅 전라남도 경우회장을 비롯해 박도춘 사무처장, 오현석 자문위원장, 최종용수석부회장, 임희택부회장 등이 참석해 경우회와 자문위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전라남도 재향경우회는 이번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영암군, 추석 선물 30% 할인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영암군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처 ‘영암몰’에서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최대 30% 할인하는 ‘2024년 영암몰 추석 맞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19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영암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전하는 대대적 할인 이벤트이다.

영암군은 청정 자연에서 정성을 다해 길러낸 매력찬우, 친환경 달마지쌀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 선물세트 등 34종을 선보인다.

영암몰의 모든 농특산물은 기본 20% 할인되고 추석 선물세트는 추가 5% 할인 가로 제공된다. 1회 주문당 100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5% 할인이 더해져 최대 30%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영암몰 댓글 이벤트 ‘이번 추석엔 어떤 추억을 쌓을까요?’도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댓글 작성자 중 추첨으로 30명을 선정해 친환경 유기농 쌀 1kg을 준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도군민들이 진도군보건소가 운영하는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보건소,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진도군보건소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3일 진도군 보건소에 따르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취약계층에 검사, 검진,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내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인 ‘마음은 청춘’ 프

로그램으로 건강검진, 통합의학 치료, 차훈명상과 경옥한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김미란 보건소 노인건강과장은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울·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목포 십자형 도시숲,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

2023년 모범 도시숲 인증

목포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하당지구의 십자형 도시숲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도시숲의 가치와 각 도시에서 조성한 도시숲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목포시의 도시숲은 십자형 도시숲으로 경제효과 증진형에 속하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주변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숲이다.

목포 십자형 도시숲은 가로로는 장미의 거리(약 1.3km·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부터 당가두교까지), 세로로는 변영로(약 1.7km·버스터미널 맞은편부터 평화광장까지) 구간에 해당한다.

목포 십자형 도시숲은 지난 2009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2009년 지방자치단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계속해서 도시숲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지난 2023년에는 모

범 도시숲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산림청은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을 기념해 오는 9월8일까지 전국 도시숲 5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한 1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작은 선물(기프트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은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배너를 찾아 인증샷, 도시숲 경관 및 이용사진을 방문 도시숲명, 방문일자를 포함해 산림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된다.

목포 십자형 도시숲 배너는 사랑의 광장(상동 1111번지) 연못 데크에 설치되어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과 더불어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명품 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